

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코넥스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시행예정일: 2019 년 3 월 29 일
3. 변경사항: • 투자대상자산에 전자단기사채 추가
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4. 상세 변경사항: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 15 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~④<생략></p>	<p>제 15 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<현행과 같음>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~④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이들을 합하여“ 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1-2.비우량채권(사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하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)</p> <p>2.~9.<생략> ②<생략></p>	<p>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사채권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1-2.법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(이하 “신용평가업자”라 한다)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하(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+ 이하)인 사채권(이하 “비우량채권”이라 하며, 이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)</p> <p>2.~9.<현행과 같음> ②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①<생략>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4 호 내지 제 8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, 동조제 6 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까지(부도 등으로 <u>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③~④<생략></p>	<p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①<현행과 같음>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4 호 내지 제 8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, 동조제 6 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까지(부도 등으로 <u>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③~④<생략></p>

<p>제 45 조(투자신탁의 해지)①<생략> ②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<생략> 5.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제 45 조(투자신탁의 해지)①<현행과 같음> ②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<현행과 같음> 5.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
<p>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~2.<생략> <u><신설></u> ②~⑤<생략></p>	<p>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~2.<현행과 같음> <u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</u> ②~⑤<현행과 같음></p>
<p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⑥<생략>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~⑥<현행과 같음>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